



태극전사 71명 밀라노 동계올림픽 간다

2022 베이징 올림픽보다 소폭 증가... 어제 결단식 열고 선전 다짐

다음 달 열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 올림픽에 71명의 우리나라 선수가 출전을 확정했다.

22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동계 올림픽 대한민국 출전 선수는 69명, 선수단 임원은 59명이었다. 여기에 알파인스키 여자부와 프리스타일 스키 여자 모굴에서 1명씩 추가로 출전권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돼 출전 선수 수는 71명으로 늘었다.

선수 수는 총 65명이 출전했던 2022년 베이징 대회보다 소폭 증가했다.

스노보드 종목에 11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렸고, '호자 종목' 쇼트트랙이 10명, 봅슬레이도 10명, 스피드스케이팅이 9명이다.

컬링이 7명, 피겨 스케이팅과 프리스타일 스키에서 6명씩, 스킨레톤과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각각 3명, 바이애슬론이 2명이며, 루지에선 정혜선(강원도청)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이날 이후에도 결원 발생 등으로 대회 직전까지 출전권 재배분이 이어져 최종 선수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베이징 대회 때도 애초 61명에서 추가 쿼터를 통해 4명 더 출전했다.

2월 7일(한국시간) 개막하는 이번 동계 올림픽에는 약 90개 국가 올림픽위원회(NOC)의 선수단 2900여명이 참가해 8개 종목, 16개 세부 종목에서 116개의 금메달을 두고 경쟁을 펼친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리는 결단식에 모여 선전을 다짐한데 이어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올림픽이 펼쳐지는 이탈리아 현지로 떠난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쇼트트랙 대표팀이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명보호 북중미월드컵 베이스캠프 멕시코 해발 1566m 과달라하라 확정

한국 축구 대표팀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베이스캠프가 고지대인 멕시코 과달라하라로 결정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는 홍명보호의 베이스캠프가 해발 1566m의 고지대인 과달라하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대표팀은 멕시코 프로축구 클럽인 클루브 데포르티보 과달라하라의 훈련장 '치바스 베르데 바예'에서 담금질한다.

대한축구협회는 앞서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3경기를 치를 멕시코의 현지 환경과 경기장 이동 거리, 운동생리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베이스캠프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과 손흥민. 연합뉴스

후보지 70여곳 중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있는 시설 두 곳을 1, 2순위로 FIFA에 제출했다.

FIFA는 ▷조 추첨 포트가 높은 팀 ▷해당 도시에서 경기 수가 많은 팀 ▷베이스캠프와 경기 장소 간 항공 이동이 적은 팀 ▷FIFA

랭킹이 높은 팀 순으로 고려해 참가국 48개 대표팀의 베이스캠프를 결정했다.

대한축구협회는 베이스캠프 1순위로 후보지로 과달라하라를 제출했고, 이는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홍명보호는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한국·멕시코·남아공·유럽 플레이오프 패스D 승자) 3경기 가운데 1, 2차전을 고지대인 과달라하라에 있는 아르곤 스타디움(해발 1571m)에서 치른다.

이에 따라 대한축구협회는 국내와 운동생리학 및 고지대 훈련 전문가, 축구협회의무분과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베이스캠프 후보지로 고지대인 과달라하라를 1순위로 꼽았다.

홍명보호는 멕시코 베이스캠프 입성에 앞서 훈련을 펼칠 사전 베이스캠프 장소도 조만간 결정해 출국 일정과 본선 베이스캠프 입성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눈 없는 나라’ 자메이카 봅슬레이 3종목 밀라노행

동계올림픽 시즌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쿨러닝’ 선풍을 불러일으키는 ‘눈 없는 나라’ 자메이카의 봅슬레이 대표팀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 출전권 3장을 확보했다.

자메이카 봅슬레이-스켈레톤협회는 22일(한국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메이카 봅슬레이 대표팀이 2026 동계올림픽에서 3장의 출전권을 따냈다. 2022년 베이징 대회와 같은 규모”라고 발표했다.

출전 종목은 여자부 모노봅, 남자부 2인승과 4인승인데, 여자부 2인승은 대기 1순위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다른 국가가 출전을 포기하면 올림픽행 티켓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연합뉴스



“올해 전국대회·대학리그 정상 도전”

제주관광대 야구부, 중국 광둥성 전지훈련

제주관광대학교 야구부가 2026년 대학야구 리그 최정상을 목표로 지난 15일부터 중국 광둥성 중산시(中山市)로 전지훈련을 떠나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갔다. >> 사진

이번 전지훈련은 2월 13일까지 총 30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훈련 장소인 광둥성 중산시는 겨울철에도 야구 경기에 최적화된 온화한 기후와 수준 높은 야구장 시설을 갖추고 있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꼽힌다.

제주관광대학교는 선수들의 실전 경기력 향상을 위해 이번 해외 전지훈련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제주관광대 김성규 총장은 “제주관광대학교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훈련에 매진하는 모든 선수들이 부상 없이 건강하게 복귀해 올 시즌 최고의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선수단을 이끌고 있는 남재욱 감독은 이번 훈련을 통해 전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남 감독은 “30일간 선수들의 실전 감각을 끌어올려 올해 대학야구 리그에서 제주관광대학교 야구부가 확실한 강자로 자리매김하도록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선수단은 이번 훈련 기간 동안 현지 팀들과의 연습 경기를 통해 투수진의 구위 점검 및 타선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등 전력 극대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제주관광대학교 야구부는 3월부터 시작되는 각종 전국대회와 대학야구 리그에서 대학의 명예를 드높이겠다는 각오다. 한 달간의 집중 훈련이 제주관광대학교 야구부의 성장에 어떤 밑거름이 될지 제주 스포츠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97년 3월 창단과 함께 전국대회 8강에 올랐던 제주관광대 야구부는 2006년 해체의 아픔을 딛고 지난 2009년 재창단하며 도내 유일의 제주고 출신 선수들과 연계한 엘리트 선수 육성의 디딤돌이 되고 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제주SK FC, 日 가고시마에서 2026시즌 준비

세르지우 코스타 체제로 2026시즌을 준비하는 제주SK FC가 일본 가고시마에서 비상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간다.

제주SK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일본 가고시마에서 해외 전지훈련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SK는 지난해에도 가고시마에서 2주간 전지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앞서 제주SK는 지난 5일 선수단 전원을 소집하고 2026시즌 준비를 시작했다. 제주SK 선수단은 코치단의 탄탄한 선수단 운영 로드맵과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체력 및 컨디션을 한껏 끌어올렸다.

이와함께 전력 보강에도 박차를 가해 권창훈, 박창준, 김신진, 기티스, 네게바 등 즉시 전력감과 허재원, 강동휘, 박민재, 유승재, 권기민 등 신인 5명을 영입하며 스쿼드의 무게감을 더했다.

제주SK는 예년보다는 짧은 일정이지만 가고시마에서 열리는 전지훈련에서 2026시즌 개막 일정에 맞춰 컨디션 조절에 주력하고 현지 팀들과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제주SK는 3월 1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광주FC와 시즌 개막전을 치른다. 위영석기자

제주의 맛, 그대로.
손끝의 정성, 그대로

제주의 바다와 들에서 얻은 재료,
그리고 제주웰링의 정성 어린 손맛.
몸이 편하고 마음이 쉬어가는 한 끼,
그게 바로 제주웰링입니다.



신한에코 | 제주시 죽성서길 7-10

064) 725-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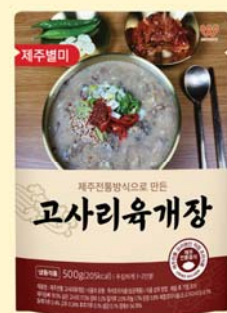
깊고 맑은 제주의 맛이 스며드는 한 끼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았습니다.

신한에코 | 제주 전통방식으로 직접 조리한 식품

따뜻하게 데워 간편하게 집밥의 맛을 느껴보세요



제주묵국



고사리 육개장



고등어조림



갈치조림



성개전복미역국



제주갈치순살비빔장



전북순살비빔장



소라순살비빔장

이런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매장에 진열해서 판매하실 분,
기존 식당 메뉴에 추가를 원하시는 식당 사장님
행사, 도시락, 단체급식 등에 추천드립니다.